

살기 좋은 영월

2025 MAY VOL.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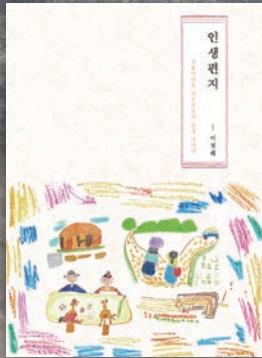
이슬아 에세이

웬만해선 그를 거절할 수 없다

영월 곤충 탐구생활

년이름이 뭐니?

별책부록



삼돌이마을에서 부친
인생편지

2025년 영월 1호 신춘부부





Acrylic on canvas, 130x80cm.

선돌

그림/글 엄기철

사람들은 나를 선돌이라 부른다.

나는 알고 있지, 너 서강을.

하루도 빠짐없이 내 곁을 흘러가고

가끔은 내 뿌리를 뽑아 너를 따라

먼바다까지 가고 싶다.

굳건히 박혀있어 흘러가지 못해

마음만 바람에 실어 보낸다…

도타운 정 나누는 오월, 애틋한 그리움을 선물합니다

221호 마감 작업이 한창인 지금, 창밖으론 봄비가 추적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요 며칠 환하게 빛나던 하얀 꽃잎은 하릴없이 지고 말겠지요. 그래도 아쉽진 않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초록으로 물든 산천이 반겨줄 오월을 곧 만나니까요. 이 좋은 계절을 맞아,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예쁜 자연을 두루 만끽하시길, 사랑하는 이와 도타운 정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살기좋은 영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독자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영월 할매들의 삶과 애환을 담백 담아낸 별책부록『인생편지』를 통해 아련한 옛 추억을, 깊은 그리움을, 애틋한 여운을 마주하실 거라 믿습니다. 책을 쓴 이정해 작가는 20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영월문학관'에는 이슬아 작가가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영월과의 특별한 인연을 꺼내놓았을까요? 인기 작가의 따끈따끈한 에세이는 12쪽에 실었습니다. 오월 우리 영월에선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임송이 명예기자가 '이달의 문화 영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살기좋은 영월』은 전국 어디서나 매달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구독하지 않는 영월 주민이 있다면, 또 영월을 알리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아래 QR코드를 통해 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이 영월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돼 주세요.

한·식·온·돌

한 달 동안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온 가족이 돌려보기

살기좋은 영월을 주변에 권하고 싶으세요? 혹은 원치 않는 배송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활용하면 배송을 신청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월
사진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 전시기간: 2025. 05. 12(월)~06. 30(월)

• 전시장소: 동강사진박물관(공모), 영월문화예술회관(주천작가)

■ 개전 및 시상일시: 2025년 5월 31일(토) 2시 ■ 시상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강당 (2025 PASK AWARDS)

살기좋은영월

2025 MAY VOL 221

발행처 영월군

제작부서 기획감사실 공보팀

주소 26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전화 (033)370-2083

누리집 www.yw.go.kr

디자인 237R

살기좋은 영월 명예기자단

편집장 이경석

취재·집필

김현진 모모 살구 윤태원 이정해 이해범 임송이

사진

석상욱 유병현 흥석진

미술 김판국 박리리 정초롱

살기 좋은 영월

2025 MAY VOL 221

Contents

- 08 걸다보니 영월
발걸음을 붙잡는 것들 _모모
- 12 영월문화관
웬만해선 그를 거절할 수 없다 _이슬아
- 16 이달의문화영월
어우러지고 벽 허무는 소통의 문화도시
_임송이·석상욱
- 20 영월인터뷰_『인생편지』 펴낸 이정해 작가
“소중한 인생 이야기, 다음 세대에 전해야죠”
_이경석·홍석진
- 24 우리 아이 언어발달 가이드 ②기다리기
기다림이 만드는 기적 _김민영·박리리
- 27 마음에 스며든 한마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 _이정해
- 28 영월 곤충 탐구생활 ③곤충 이름 알아보기
넌 이름이 뭐니? _석상욱
- 32 서체기행 ②사랑방식당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 _강병호
- 34 살구가 만난 사람 ⑦‘퍼매컬처’ 실천해 가는 양인숙씨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농업
“건강한 삶의 비결 전하고 싶어요” _살구·홍석진

- 38 그리며 읽는 그림책 「이게 정말 천국일까?」
날아다니는 비닐봉지가 되어 _김현진
- 42 영월애세이
내가 살고 있는 무동마을 _윤삼용
영월군민 여러분, 나무를 심어요 _윤석천
- 44 안녕하세요, 이장님
이상국 무릉도원면 두산2리 이장 _살구·홍석진
- 46 보는 소리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입니다.”
_영월군수어통역센터
- 48 이달의 추천 도서 「흔모노」
진짜와 가짜 _윤태원
- 50 세계 문학산책 「종말의 바보」
당신의 멸망은 희망적입니까 _이경석
- 56 생활건강
호미질로 지키는 손목·상체 건강 _이해범
- 58 영월시네마 5월 개봉 예정작
- 60 군정 소식
- 62 의회 소식
- 66 독자 참여 코너
- 69 나눔 소식





발걸음을 붙잡는 것들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가, 낡고 좁은 골목이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그 길 위에서 빛바랜 추억 한 줌 건져 올린 날, 수많은 걸음마다 새긴 이야기가

새록이며 말을 걸어온 어느 날.

도시 여행자들이 만난 구석구석 영월의 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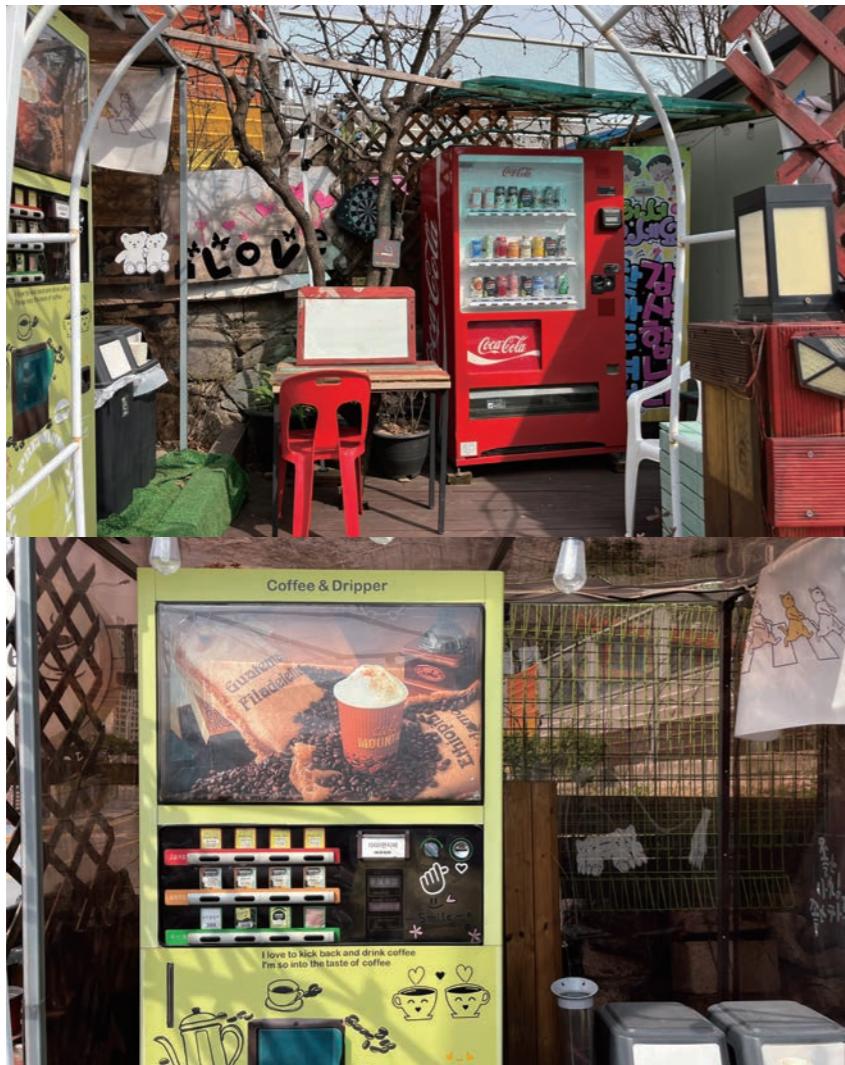
글/사진 모모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날이 따뜻해진다 싶었는데 벌써 낮에는 꽤 덥다. 점심을 먹고 나서 산책을 했더니 털옷 입은 유월이가 헥헥거린다. 온몸에 털을 두르고 있으니 아무래도 더 덥겠지? 이제부터는 다시 선선해질 때까지 점심나절의 산책은 피해야겠다. 아침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옷 고르기도 쉽지 않다. 영월에서는 패딩을 단종 문화제가 끝나고 나서야 넣는다고 들 했는데, 역시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날이 뜨거워져 여름옷들을 꺼내고 두꺼운 외투는 넣어두었는데,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나 보다. 가진 옷들을 최대한 겹쳐 입는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걷다가 종종 남의 집 담장 안을 슬쩍 넘겨다보는 버릇이 있다. 작은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정리된 텃밭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마당 벽에 붙어 있는 거울이나 수세미, 삽 같은 생활 도구들이 눈에 들어오면 괜히 반갑다. 누군가의 일상이 고스란히 놓인 그런 공간은 늘 나를 멈추게 만든다.

그중에서도 나는 특히 기다란 빨랫줄에 널린 빨래들을 좋아한다. 이불, 수건, 잠옷… 젖은 빨래를 탁탁 털어 가지런히 넌졌을 그 사람의 손길이 떠오른다. 색색의 옷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이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 집에 사는 누군가가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있다는 흔적을 보고 안심이 되는 모양이다.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 부지런함과 정갈함이 내 삶에도 잔잔한 영향을 준다. 잘 정돈된 빨랫줄을 보면 나도 부지런하게 지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 길 위에서, 마당 안 빨래를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내 모습은 아무래도 수상쩍어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그런 풍경을 마주한 뒤면 더 척척척 속도를 내 걷는다. 잘 모르는 누군가의 생활에서도 영향을 받다니, 세상은 이렇게 이어





져 있는 걸까?

또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된 대문이다. 골목골목 걷다 보면 그런 대문을 마주칠 때가 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지만, 나는 그 앞에서 종종 발걸음을 멈춘다. 겹겹이 문을 보수한 흔적, 햇빛에 나무가 일어나 생긴 무늬, 문이 가진 특별한 색. 이 대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반듯하고 균사한 대문보다 닳고 낡은 대문에 더 마음이 간다. 같은 모습으로 찍혀 나온 기성품이었대도, 시간이 남긴 흔적을 그대로 품으며 하나뿐인 존재가 된 대문. 그런 대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것들에 대한 묘한 존경이나 애

듯함 같은 감정이 생긴다. 세월을 견뎌낸 것들이 가지는 단단한 온기가 좋다.

마지막으로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판기다. 요즘은 점점 보기 힘들어졌지만, 골목이나 마을 어귀에서 오래된 자판기를 마주치면 괜히 반가워진다. 그 앞에 서면 어릴 적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자주 다니던 도서관 입구에는 커다란 자판기가 있었다. 동전을 넣으면 종이컵에 얼음과 탄산음료가 채워져 나오던 그 자판기. 내가 도서관에 가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자판기 음료였다. 도서관에 가면 항상 매점에서 주문한 라면과 자판기로 뽑은 환타 파인맛을 함께 먹었다. 뜨거운 라면과 음료수의 맛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중간중간 덩어리져 나오던 율무차, 입안에서 알갱이가 굴러다니던 자판기 우유, 이상하게 묽게 뽑히던 코코아. 자판기에서 툭 하고 컵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좋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걷다가 낡은 자판기를 만나면 자꾸만 멈춰 서서 지갑에서 현금을 찾는다. 달그락,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를 골라 버튼을 꾹 누르면 위잉 하고 자판기가 작동한다. 그 기다림이 좋다.

우리 동네에는 자판기와 의자가 함께 놓여 있는 작은 쉼터가 있다. '길다방'이라는 간판까지 달린 그 공간은, 누군가의 사려 깊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장소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고, 꽃들로 이곳저곳 장식되어 있다. 처음 그곳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놀라워했던 기억이 난다. 그 뒤로 나는 걷다가 덥거나 추울 때 자주 그 휴게소에 들른다. 또 누군가에게 영월의 멋진 구석을 소개할 때면, 나는 빠짐없이 그곳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걷다가 발걸음을 멈출 일이 많으니 큰일이다. 약속에 늦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더 일찍 나서야겠다.





웬만해선 그를 거절할 수 없다

이슬아

프리랜서로 지내온 십수 년간 거절의 기술을 갈고닦아왔다. 과로로 인하여 허리를 여러 번 휘고 나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쟁아지는 일을 밑도 끝도 없이 수락하다 보면 몸이 남아나지 않는 법이다. 이미 맑은 과업만으로도 고단한 시기인 만큼 웬만한 일은 마다한다. 시간과 체력의 한계로 어렵다는 등, 멋진 기획이지만 제가 참여하기엔 무리라는 등,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사양을 잘도 해댄다.

그러나 이런 나조차도 때때로 진퇴양난에 처하곤 한다. 도무지 물리치기 힘들 만큼 대단한 적수가 쓴 이메일을 받으면 말이다. 미간 주름을 구기며 '간단히 거절하고 싶었는데… 좀 까다로워졌는걸…' 하고 생각에 잠기게 된다. 거액의 섭외료 없이도 자꾸 신경 쓰이는 제안 메일을 쓴다는 건 상당한 실력이다. 나를 긴장 시킬 만큼 지독한 적수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아마 전국 팔도별로 한 명꼴일 것이다.

그 몇 안 되는 적수 중 한 명이 영월에 있다. 정확히는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614번지다. 지도 앱에 이 주소를 검색하면 주변에 딱히 뭐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온통 초록색뿐인 배경과 구불구불한 등고선도 보일 것이다. 그렇다. 이곳은 산속이다. 나는 깊은 산속에서 장사를 하는 한 남자의 이미일에 대해 말하려 한다. 번지수까지 적어 가며 좌표를 밝히는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가게가 서점이라서다. 그 서점과 나는 비슷한 때 데뷔했다. 서점 개업 시기와 내가 첫 책을 낸 시기는 얼추 맞물린다. 7년 전 어리숙한 출판사 사장으로 책의 제작과 유통에 직접 나서면서 나는 전국의 독립 서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

며 상부상조했다. 서로의 매출에 일조하는 셈이었다. 책 없이 서점 없고, 서점 없이 작가 없기 마련이다. 줄어드는 독서 인구와 치솟는 월세에도 불구하고 자리 를 지켜준 책방들 덕분에 나 역시 집필과 출판을 이어갈 수 있었다. 여러 책방 중에서도 영월의 그 서점 주인과는 어쩐지 조금 더 정이 들고 말았다.

맨 처음 그 서점에 방문했을 때였다. 인적도 드문 영월 한구석에서 내 책을 어쩜 그리 꾸준히 파는지 궁금 했었다. 계속해서 10부, 20부, 30부씩 입고해 가길래 그저 신통하다고만 생각했었다. 일곱 평도 채 안 되는 서점에는 좋은 문학책들이 넉넉하게 엄선되어 있었다. 다른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독립 출판물의 종수도 다양했다. 문학을 사랑하면서도 일면 뾰족한 큐레이팅이었다. 흥미롭고 고집스러운 서점 주인의 취향을 슬렁슬렁 구경하던 나는 어떤 서가 앞에서 앗, 하고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내 이름으로 된 코너가 따로 있어서였다. 반듯하게 세워놓은 나의 전작들 아래로 이런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슬아 앞에서 만인의 취향은 평등해진다.' 천명하듯 적힌 그 한 문장에 말을 잃고 말았다. 엄청 나게 확실한 지지였으니까. '이슬아 책이 호불호가 있을 리가 없잖아'라는 의미였으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독자를 만나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고개를 돌려 서점 주인을 바라보았다. 책방 손님들을 방해하지 않으려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남자. 여러 산전수전을 거친 뒤에 서점을 차린 남자. 고향인 영월을 떠나 세계를 돌아다닌 뒤에 다시 영월로 돌아온 그 사람의 얼굴을 슬쩍슬쩍 구경했다. 그의 책방은 전혀 크지 않

고, 그럴수록 내 책을 위한 자리를 따로 빼뒀다는 게 말로 다할 수 없이 황송해졌다. 서점의 편애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곱씹으며 이슬아 코너 앞에 서 결심했었다. 이제부터 나도 그 서점을 편애하기로. 몇 년이 흘렀다. 그사이 우리는 몇 번의 협업을 함께 했다. 영월을 아름답게 알리는 무료 책자를 함께 만들고, 외진 산속 서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몇 번의 북토크를 열기도 했다. 끝난 뒤엔 서점 지붕 위로 쏟아지는 별을 보며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호시절일지 모르겠다고 잠시 한숨도 나눴었다. 모두 그가 쓰는 정갈한 제안 메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그 모든 시간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바빠지고 말았다. 내가 드라마 각본에 투입된 이후로는 어떤 원고 청탁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독립 서점들과 간간이 벌였던 재미난 행사들도 이젠 기약 없이 멀어졌다. 각본 집필만으로도 잠잘 시간이 모자랐다. 모든 원고 청탁 메일에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답장을 쓰곤 했다.

그러다가 영월의 그 남자로부터 다시 메일을 받았다. 메일은 언제나처럼 정중했다. 성심성의껏 새 원고 집필을 제안하는 내용이었고, 원고 청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내마금지'(내용과 분량, 마감일, 금액, 지급일)도 정확히 적혀 있었다. 허나 수락은 무리였다. 아무리 내가 편애하는 서점 주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쪼개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생긴다면 늘 부족한 잠부터 보충하는 게 현명할 것이었다.

또다시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답장을 쓰려는데 메일 하단에 흐린 글씨로 달려 있는 추신이 보였다. 위 내용이 공식 업무 연락이라면 아래는 사적인 편지라며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있었다. 어쩌면 서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슴 덜컹거리는 소식이었다. 수많은 독립 서점 주인들이 사실상 투잡을 뛴다. 서점 운영만으로는 넉넉하게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니

까. 내게 원고를 청탁하는 건 그가 복무하는 투잡 중 하나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의 새 글을 바라는지 설명하면서 이런 문장을 덧붙였다.

'더 이상 성과가 없으면 저는 내년에 서점 문을 닫고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슬아님, 우리 함께 쏟아지는 별 무리 아래에서
서점 앞산을 바라보며 호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날을 부디 기억해주세요
호시절은 춘몽처럼 사라졌고 애인도 사라졌고
일도 사라져갑니다
자수성가의 대명사, 가녀장의 대표, 슬아님.
도와주세요!'

도무지 쉽게 거절 메일을 써내킬 수가 없었다. 그가 거의 예술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온갖 종류의 읍소에 지친 작가다. 생판 모르는 이들로부터 '두 아이의 엄마인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300만원만 보내주시면 요긴히 쓰겠습니다' 라든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데 작가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자살하지 않을게요' 라든지 '비영리 환경단체인데 작가님이 홍보를 해주지 않으시면 실망하겠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수두룩하게 받는다. 신인 때는 그런 걸 읽고 잠 못 이루곤 했으나 이제는 내 몫이 아님을 안다. 그걸 해결하려 나서는 게 오만이라는 것도.

하지만 영월의 그 남자가 서점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이슬아 코너를 따로 만들어놓은 서점을… 어찌 모른 척한단 말인가?

새삼 많은 것이 통탄스러웠다. 서점이 근근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도 통탄스럽고, 줄어드는 전 국민 독서율과 늘어나는 스크린 타임도 통탄스럽고, 매일 내 눈 앞에 펼쳐지는 재밌고 무의미한 쇼츠와 릴스도 통

탄스러웠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정말 알미웠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남자 말이다.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슬아입니다.
그저께 보내주신 장문의 메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읽었습니다.
호시절이 끝나셨다니 속상하군요.
하지만 일단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유능한 메일을 쓰실 수 있다는 점과 여전히 젊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호시절일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때 수락한 원고가 바로 이 글이다. 영월 서점 주인의 읍소를 끝내 모른 척하지 못하여 쓰게 된 원고 말이다. 이 글을 쓰느라 드라마 각본 마감을 하루 미루고 말았다. 내가 늦으면 모든 스태프의 일정도 하루씩 밀린다.

내일 모레 있을 드라마 제작자 회의에 아주 송구스러운 자세로 입장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구태여 이 줄고를 썼다.

그만큼 나는 정말이지… 한 서점이 없어지는 게 너무 슬프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서점이다. 영월에 간다면 그곳을 꼭 들려주면 좋겠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서점을 공중화장실처럼 쓰는 관광객이 더러 있다고 한다. 서점 주인은 선한 사람이라 서점 화장실 이용을 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망한다.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의 가게에서 오줌이나 똥을 쌌다면 손을 씻고 나온 뒤에 그가 파는 책도 살펴봐 주기를. 가능하면 살펴보지만 말고 한 권쯤 사주기를. 그 서점이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인과 책들은 계속해서 거기 있기 위해 사실은 힘을 쓰며 기다리고 있다. 당신에게 읽힐 때까지.



이슬아

작가, 출판인, 그리고 드라마 각본가다. 수필, 소설, 칼럼, 인터뷰, 작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글을 쓴다.『심신 단련』『깨끗한 존경』『끝내주는 인생』 등 13권의 책을 집필했고 현재 장편소설『가녀장의 시대』각본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2023년 45만 독자가 뽑은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를 수상했다.



지난달 11~12일 개최된 하송리 벚꽃축제.

어우러지고 벽 허무는 소통의 문화도시

즐길거리 풍성한 영월에선 이달 또 어떤 신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프로 영월 즐길라’ 임송이 명예기자가 매달 다채로운 영월의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글 임송이 / 사진 석상욱

새봄, 벚꽃잎 따라 문화도 활짝

4월, 살랑이는 봄바람과 함께 영월읍 하송리에서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벚꽃 축제가 열렸다. 큰 규모의 화려한 축제는 아니었지만, 마을 공원에서 펼쳐진 '하송리 벚꽃축제'는 벚꽃 아래 봄날의 풍광과 여유를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단순히 꽃구경만 했다면 섭섭하지. 축제에는 영월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프로그램이 함께해 즐거움을 더했다. 문화도시 영월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찾아가는 문화보부상'은 올 한 해 영월의 11개 읍·면 축제마다 찾아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시작을 알린 첫 행사가 바로 하송리 벚꽃축제. 이번 축제에선 어린이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선보였다. 장난감 뽑기, 샌드위치 만들기, 벚꽃 사진 액자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지역 예술인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등의 무대도 꾸려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작은 축제는 아름다운 풍경 속 새봄의 시작을 알리고, 지역 문화와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하송리 벚꽃축제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따끈하게 구워낸 '맛있는 소통'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래전 TV에서 들었던 과자 광고 CM처럼, 소통이란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강원도농아인협회 영월군지회는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농인과 청인이 함께하는 베이킹 클래스 '함께 만들어 가는 맛있는 소통'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의 벽을 허물고, 베이킹을 통해 농인과 청인이 서로 어울리며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 현장을 찾은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체험 부스.

매주 수요일 영월군장애인문화복지센터에서는 농인과 청인이 함께하는 베이킹 클래스가 열린다.



자리다.

수어 초급반 수업을 수강한 청인들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툴지만 그간 열심히 익힌 수어로 농인들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바나나를 이용한 비건 바나나파운드 케이크를 굽고, 다양한 종류의 오란다를 만들어 함께 포장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서로의 손길을 느끼며 더욱 친밀해지고 소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베이킹 클래스는 6월 중순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4시 30분 영월군장애인문화복지센터 1층에서 진행되며, 회차별 선착순 10명 모집한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전화(033-374-0822)로 하면 된다.



'함께 만들어 가는 맛있는 소통' 베이킹 클래스에 참여한 임송이 명예기자.

농치면 아까운 5월의 문화·예술 행사

유아동 뮤지컬

'양치하기 싫은 치카, 뿌카, 풍카'

일시: 5월 3~5일 오후 2시

장소: 영월관광센터

아트라운지

관람료: 5000원(공연

30분 전 현장 예매, 관람 시

영월관광센터 3000원

쿠폰 제공)



제43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일시: 5월 12일~6월 30일

장소: 동강사진박물관, 영월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무료

어린이 연극

'아하! 강아지똥'

일시: 5월 24일 오후 2~4시

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관람료: 1만원



창작 뮤지컬

'장릉 낮도깨비'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전 11시

※우천 시 취소

장소: 세계유산 장릉

관람료: 무료



영월호예술단 한국무용 공연 '만고강산'

일시: 5월 24일 오후 1시

장소: 주천면 판운 섶다리

관람료: 무료

※각 행사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책 『인생편지』 펴낸 이정해 작가

“소중한 인생 이야기, 다음 세대에 전해야죠”

이번 소식지 별책부록으로 발행된 『인생편지』 잘 받아보셨나요? 『살기좋은 영월』의 인기 코너 ‘박힌 돌 어르신의 인생 편지’를 통해 소개된 영월 어르신들의 가슴 뭉클한 인생 이야기를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낸 이정해 작가를 만나 작업을 시작한 계기와 책에 얹힌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글 이경석 / 사진 홍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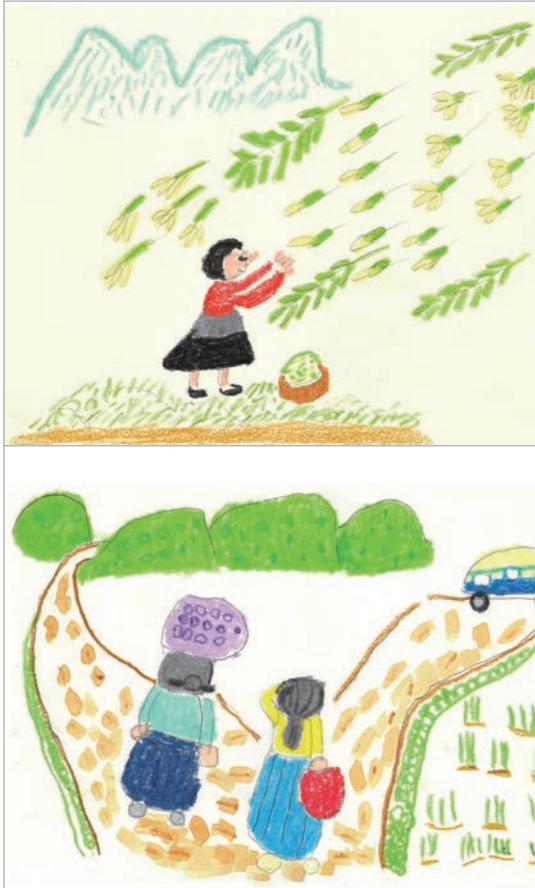
어르신들의 삶에 귀 기울인 귀촌 작가

영월군 무릉도원면에는 ‘삼돌이마을’이란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다. 여기서 ‘삼돌’은 세 개의 돌을 말하는데 각각 원주민을 의미하는 ‘박힌 돌’과 귀농·귀촌 인에 해당하는 ‘굴러온 돌’, 그리고 미래에 주민이 될 예비 귀농·귀촌인을 뜻하는 ‘굴러올 돌’이다. 삼돌이마을은 이름처럼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어우러지고,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지난 2015년 가을, 이 마을에 귀촌한 이정해(54) 작가

는 마을 주민들 가운데서도 ‘박힌 돌’ 어르신들의 삶에 주목했다. 이런저런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삶에 녹아드는 사이, 특히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정겨웠다. “마을 어르신들이 정말 진심 어린 눈빛으로 걱정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 어르신들도 평소 안 하셨던 옛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렇게 들은 인생 이야기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고,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도 이 귀한 경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씨가 귀촌을 결심한 까닭은 다소 무겁다. 지금은 ‘하



박힌 돌 어르신이 추억을 회상하며 직접 그린 그림. 투박하지만 정겹고 따스하다.

늘이 깜깜하더니 날벼락을 맞아서'라며 웃으며 회상하지만, 시골로 발길을 이끈 건 느닷없는 남편의 투병이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잘 나가던 남편만 믿고 아이셋을 낳았는데, 갑자기 대장암에 걸려버렸지 뭐예요? 하늘이 깜깜했죠."

개성 있고 정감 어린 '인생의 한 장면'

남편의 수술과 휴식 후 부부는 귀촌할 시골 마을을 물색했다. 남편이 생사의 고비를 넘겼으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삼았다.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삼돌이마을은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이라 마음에 쑥 들었다. 안전한 곳을 원했는데, 마침 찾아든 영월이 십승지(十勝地, 재난이 난을 때 피난을 가면 안전하다는 열 군데 지역) 중 하나였다 는 점도 재미있었다고. 뜻밖에 맞은 상황이었지만 부부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이씨는 "걱정은 커녕 오히려 기쁜 마음이 들었다"며 "독박 육아에 지쳐 가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쉬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삼돌이마을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와 손수 그린 그림이 담긴 '인생편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씨는 귀촌 전 서울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다. 국내 최초의 캐릭터연예신문 '페이퍼'를 비롯해 신문, 잡지, 사보, 포스터, 광고 등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작업을 해왔다. 그런 그가 감동한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그림과 연결지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박힌 돌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분들이라 그림은 커녕 연필도 잡아본 적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아이처럼 즐거워하시는 걸 보고 저도 보람을 느꼈죠."

처음엔 그림을 못 그린다며 손사래 치던 어르신들도 '누구나 그릴 수 있다'며 권하는 이씨 앞에선 '그럼 한번 해볼까?'하며 용기를 냈다. "막상 그리기 시작하면 엄청 욕심들을 내세요. 여러 번 고치더라도 추억으로 남아 있는 당시 모습을 최대한 잘 표현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들의 그림에는 개성이 넘치고 정감 있는 따뜻한 그림이 많아요."

"앞선 세대 고된 세월, 잊지 않았으면"

이씨가 '인생편지'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앞선 세대에 대한 고마움이다. 그는 척박한 환경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우리를 길러낸 어르신들의 인생을 '어떤 값비싼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씨



는 "어르신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고된 세월을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견디며 살아오셨다"며 "어르신들의 인생에 담긴 교훈을 가슴에 담아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환경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희생한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는 걸 알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지금껏 열다섯 분의 어르신이 '인생편지' 작업에 참여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씨는 김옥화 어르신이 들려준 '해을래잔치' 이야기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꼽는다. "해을래잔치는 진갑잔치를 치르고도 배우자와 자식 내외, 손주까지 다 살아있고 동네에서 부자 소리를 들어야 할 수 있는 잔치라고 해요.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는데, 인터넷이고 어디고 기록이 없더라고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해을래잔치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 무척 기억에 남아요."

이씨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인생편지"를 동화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을 예쁜 자수로 수놓아 어르신들의 인생에 꽃길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고 싶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 2막의 삶터가 돼준 삼돌이마을에 대한 자랑도 살짝 내비쳤다. "삼돌이마을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힘을 모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온 곳이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작은 언쟁이 생기면 어느 새 큰 강물 속으로 스르륵 녹아버리고 평화롭게 흘러가죠. 박힌 돌과 굴러온 돌이 언제든 굴러올 돌을 두 펄벌려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곳이기도 해요. 탁 트인 전망의 삼돌이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시고, 그 옆 아담한 삼돌이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읽으며 산골의 여유를 즐기러 놀러 오세요. 부담 없이요."

기다림이 만드는 기적

글 김민영 언어재활사 / 일러스트 박리리

첫 번째 단계였던 ‘관찰하기’, 잘 경험해 보셨나요?

바쁜 일상에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만 집중해 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찰의 시간은 낯설고 신기한 경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지었었나?”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저런 행동은 왜 한 걸까?”

새롭게 알게 된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알게 된 정보를 너무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느껴주세요.

아이의 언어와 의사소통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셨다면, 다음은 어떻게 하면 아이의 ‘상호작용 기술’이 자라나게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말이나 행동 등 서로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주 양육자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감하며 점차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눈을 맞추고 함께 웃는 장면, 아이가 “머머”라고 표현했을 때 “아, 멍멍이 봤구나!”하고 반응해 주는 상황이 바로 상호작용의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기술이 잘 발달하는 것은 아이의 언어발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촉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호작용 기술의 향상만으로도 아이의 언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호작용 기술의 첫 단계는 ‘적절한 자세 갖추기’와 ‘기다려주기’입니다. 이 두 단계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이며, 잘 적용된다면 아이에게 훨씬 더 깊고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①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를 떠올려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죠. 아이와의 상호작용도 다르지 않아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눈높이를 맞춰 앉아보세요. 엄마나 아빠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낀 아이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미 아이는 상호작용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셈이에요. 그



리고 그 순간을 즐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와 초보 언어치료사들이 흔히 겪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언어발달이 느린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자세를 취하자마자 다양한 단어와 문장을 쏟아내고, 준비한 교구나 놀잇감을 열심히 활용하려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관심 없는 것들을 앞에 두고, “이건 뭐야? 사과! 이건 뭐야? 바나나! 이건 뭐야?” 이렇게 질문을 쏟아내면 아이는 오히려 시선을 돌리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반응이 없을수록 어른은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결국 아이는 상호작용에서 멀어지며 흥미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곤 합니다.

② 상호작용의 시작은 ‘기다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에게 먼저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가만히 아이 앞에 앉아서 아이의 반응을 기다려주세요. 처음엔 10초가 10분처럼 아주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먼저 소리 내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놀잇감을 들고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상호작용의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단계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아이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적절한 자세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가 먼저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아이에게는 “내가 표현해도 괜찮구나”,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를 기다려주는구나” 하는 큰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아이와의 일상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 기다림 안에서 아이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자라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soma.socialcoop@gmail.com)로 문의하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

글 이정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나만 손해지.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거든.
유리알처럼 맑은 눈으로 찬찬히 바라보면
그 사람의 재능이 보여.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배우게 되지.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배우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오늘 만난 동아리 선배는
내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었다.
이 겸손한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달라 보인다.



넌 이름이 뭐니?

우리 영월에는 어떤 곤충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요?

계절마다 또 밤낮으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곤충과 채집 방법, 표본 만들기까지.

곤충 박사님이 알려주는 곤충의 세계를 9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글 / 사진 석상욱

비슷한 벌과 파리, 어떻게 구분하죠?

“상욱아!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다 벌 아니여?” 지난달 실린 파리와 벌 사진들을 본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 물어보셨어요. 제가 퀴즈만 내고 벌과 파리를 구분하는 법을 안 알려드렸더니 주변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벌과 파리 구분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곤충은 보통 날개가 두 쌍,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데 사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형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딱정벌레들은 앞날개가 딱딱한 껍질로 변형돼 몸을 보호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개미들은 역할에 따라 날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바로 이 날개 수로 벌과 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벌은 날개가 두 쌍인데 파리는 한 쌍뿐입니다. 파리 날개 한 쌍은 어디로 갔냐고요? 파리의 뒤쪽 날개는 ‘평균곤’ 또는 ‘평형곤’이라는 특별한 도구로 변했어요. 이 평균곤 덕분에 파리는 더 빠르고, 심지어 공중에서 가만히 멈춰 있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벌이든 파리든 가까이 다가가서 날개 수를 세기는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은 벌처럼 생긴 곤충이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아요.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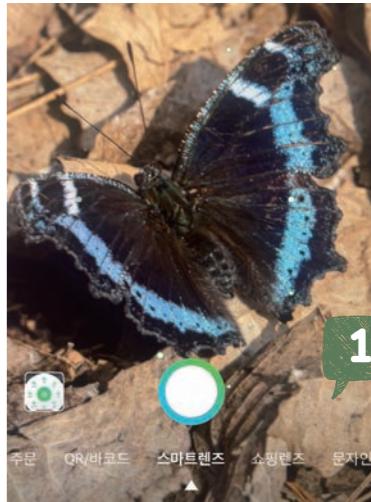


곤충 이름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

곤충을 만났는데 “이름이 뭐지?” 궁금할 때가 많죠? 그럴 땐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① 스마트폰으로 찰칵!

스마트폰의 스마트렌즈를 이용해 촬영만 하면 이름을 찾아주니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만 작은 곤충이나 흔하지 않은 곤충은 틀리거나 못 찾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곤충도감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된답니다.



② 곤충도감 찾아보기

곤충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 곤충도감을 한 권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만 곤충도감은 대부분 아주 두꺼워요. 우리 생각보다 곤충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원하는 곤충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스마트렌즈를 함께 이용하면 좋습니다. 스마트렌즈를 이용해 내가 찾고 싶은 곤충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도감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③ 네이버 카페 ‘곤충나라 식물나라’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제일 큰 인터넷 카페입니다. 인터넷 카페이지만 곤충을 공부하는 박사님들부터 곤충을 좋아하는 일반인까지 다양한 회원이 활동하고 있어요. 모르는 곤충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정해진 양식에 맞게 글을 올리면 어떤 곤충인지 이름을 알려줄 거예요.



올해 영월에서 만난 곤충 친구들

① 도롱이벌레

건물 벽이나 나무에 이렇게 붙어있는 곤충 친구를 본 적 있을 거예요. '도롱이벌레'라고 부르는 이 친구는 '주머니나방'의 유충(애벌레)입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천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주변의 나뭇잎이나 나무껍질 등에 침을 빌라 이렇게 도롱이(짚이나 풀로 만든 비옷)처럼 생긴 보호막을 만들어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똑똑하죠?



② 양봉꿀벌

노루귀 꽃의 꿀을 맛있게 먹고 있는 '양봉꿀벌'입니다. 꽂은 곤충에게 꿀을 주고, 곤충은 꽂의 수분(꽃가루가 암술머리로 옮겨지는 것)을 도와 열매를 만들 수 있게 해 줘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들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서로 돋는 사이라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돼요.

③ 청띠신선나비

검은 날개에 파란띠가 두 개 있는 아주 멋진 나비라 한 번만 봐도 기억할 수 있어요. 봄에 산책을 하다 보면 '뿔나비'와 함께 종종 볼 수 있어요. 예민한 친구라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훙! 날아가서 자세히 보기 어렵지 않지만 만날 수 있다면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④ 가시애꽃벌

동강 유역에만 사는 특별한 꽂, 동강할미꽃이 올해도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가시애꽃벌'이 꿀을 먹으러 동강할미꽃을 찾아왔습니다. 가시애꽃벌이 맛있게 꿀을 먹고, 수분을 열심히 도와줘서 동강할미꽃들이 오래오래 영월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

우리 마을 곳곳의 서체를 재발견하고, 시간의 결을 읽어냅니다.

서체 디자이너의 눈길 따라 떠나는 영월 글씨체 여행.

글 / 사진 강병호

1982년부터 삼대에 걸쳐 운영 중인 영월읍 '사랑방식당'은 영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소문난 맛집이다. 그런 사랑방식당이 지난 1월 서울 광화문에 분점을 냈다. 분점을 보고 나니 지난 추억이 떠올라 오랜만에 영월 본점을 방문했다.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오징어불백'은 여전한 기억 속 그 맛이었다. 사실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건 간판과 주문 방식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종업원이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곤 했다. 지금은 테이블 위 태블릿이 종업원을 대신한다. 말을 건넬 필요 없이 화면을 통해 주문한다. 사람 대신 텍스트와 이미지가 일하고 있었다. 기술의 발전은 일면 편리하지만, 종종 웬지 모를 아쉬움을 남긴다. 간판도 마찬가지다. 사랑방식당 광화문점 간판의 글씨는 말끔한 고딕체다. 고딕체는 네모체, 돋움체, 민부리체로도 불리며 산세리프 계열에 속한다. 획의 빠침과 같은 장식이 없는 게 특징이다. 그런데 영월 본점의 간판은 같은 고딕체인데도 '돌기'가 있다. 돌기란 글자의 세로줄기와 기둥 모서리에 있는 아주

작은 장식이다.

고딕과 명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세대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1916~1988)의 글씨체를 1991년 신명시스템(현 직지소프트)에서 디지털 폰트화한 SM 서체에도 기둥과 세로줄기의 돌기가 있었다. 1994년 맥 OS 기본 서체로 활용된 애플고딕이나 1995년 윈도우 기본 서체로 활용된 MS돋움에도 돌기가 존재했다. 이렇듯 돌기는 예전 고딕체에서는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잘 쓰지 않는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글꼴이 점차 간결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돌기와 같은 미세한 요소는 하나둘 생략되기 시작했다. 간판에도 시대의 흐름과 변화가 담긴 셈이다.

하지만 영월 본점의 간판은 그 시절의 형식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 가업을 이어 사랑방식당의 삼대째 주인이 된 사장님은 "이 간판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로 오래된 글씨체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 '정체성'과 같은 간판의 글자를 그대로 복원해 명함과 종이컵 등에 새겨넣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시대가 변하며 사라진 종업원의 설명처럼, 광화문점 간판에선 돌기가 사라졌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사랑방식당이라는 원조(Origin)의 품격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 지난 세월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작은 흔적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유산은 시작된다.

사랑방

영월 본점 간판에선 글자의 세로줄기와 기둥 모서리의 작은 장식인 '돌기'를 볼 수 있다.

사랑방

돌기가 생략된 사랑방식당 광화문점 간판.

강병호는

경북 문경시, 충남 부여군, 서울 마포구 등 다수 지역 서체를 개발한 서체 디자이너다. 현재 영월만의 멋과 개성이 담긴 영월 서체를 개발 중이다. (주)도시브랜드연구소 대표.



⑦‘퍼머컬처’ 실천해 가는 양인숙씨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농업 “건강한 삶의 비결 전하고 싶어요”

글 살구 / 사진 홍석진

블로그로 인연을 맺은 ‘주모’님께 인터뷰를 요청하자 흔쾌히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모’는 양인숙(57·무릉도원면 두산2리)님의 블로그 별명이에요. 무릉도원면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밭을 일구며 생태 지향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구 영월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원래 시골살이를 준비하셨나요?

양인숙 도시에 살면서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도시에서 소비 없이 산다는 건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자급자족이 답인 것 같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 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10년 전부터 살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 곳을 다녔는데 딱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영월에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산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갈 너비였는데, 그 길을 지나 이 집 앞에 왔을 때 ‘아 이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에 둘러싸였는데도 해가 너무 잘 들고 집 앞으로 맑은 물도 흐르고요. 산길이 마음에 걸렸는데, 다행히 다른 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영월에 자리 잡게 됐어요.

살구 농사는 지어본 경험이 있으셨어요?

양인숙 아니요. 3년 정도 주말농장 해본 것 같아요. 본

격적인 농사는 여기 와서 처음 지어봤어요. 처음엔 마을 분들에게 배워가면서 관행농(농약과 비료를 쓰는 농사)으로 지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영월군농업기술센터에서 퍼머컬처 과정을 들었는데, 마치 심봉사가 눈을 뜬 기분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던 게 바로 그거였죠. 교육생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밭을 완성했어요. 땅 크기며 주변 환경이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배운 대로 바로 밭을 만들었죠.

살구 교육 과정이 큰 변화를 일으켰네요.

양인숙 땅심을 키우는 방법 중에 후글컬처라는 게 있어요. 땅 밑에 큰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잔가지와 낙엽을 덮어 흙을 붙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폐 표고목을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옆 마을 표고농장에서 폐 표고목을 가져왔죠. 처음 땅을 파보니 온갖 쓰레기가 나왔는데, 그걸 다 치우고 땅을 파서 폐 표고목과 둘깨단을 넣었어요. 둘깨단도 마을에서 처리가 어려워 다들 방치해 놓은 것이었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틀밭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밭을 만들면서 첫해는 땅을 살린다는 의미로 수확은 기대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확할 때가 되니 전보다 3배 이상의 작물이 나오더라고요. 퇴비도 거의 안 주고 액비(액체 거름)랑 바나나 껌질 같은 거 같아서 줬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수확하는 걸 영상으로 남겨놨어요.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서요. 땅의 차이를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했어

요 살아있는 땅을 경험했다고 할까요.

살구 즐거워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저 공간을 모두 혼자 하셨다고요?

양인숙 네, 너무 즐거워서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요. 만들고 나서 며칠 힘이 없긴 했지만요.(웃음) 제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되도록 오셔서 흙을 만져보게 했어요. 직접 보면 다르거든요. 모두가 이 방법을 쓰는 건 어렵겠지만, 이렇게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살구 집에서도 생태 지향적 삶을 추구하신다는 글을 봤어요. 화장실에서 휴지도 안 쓰고요.

양인숙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휴지 없는 화장실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휴지 대신 소창을 두고 사용하고, 소변도 가능하면 퇴비로 쓰려고 모아두고 있어요. 손님들도 그렇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처음엔 좀 당황



도연자락에선 생태 지향적 농법으로 기르는 100여 종 작물이 자란다.

하시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알아간다고 하더라구요. 샴푸와 화장품은 만들어 쓴지 오래됐어요. 한 30년? 부엌 세제 대신 구연산이랑 밀가루, 베이킹소다를 쓰고요. 참 미용실도 안 간지 오래네요. 머리도 직접 자르고 있어요.

살구 그러기엔 너무 예쁘게 자르셨는걸요? 혹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양인숙 집 옆에 흐르는 계곡이 너무 맑고 아름다워요. 물메기가 살 정도로 깨끗한 계곡이죠.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자연이 주인이고 우리는 더 불어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럼 덜 헤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살구 주변 자연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꿈꾸던 삶을 살고 계시는데, 만족하세요?

양인숙 완전 행복해요. 블로그에도 썼는데요. 제가 도연명이라는 중국 시인을 좋아해요.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시골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도연명의 시구 중에 '도연'이란 단어가 나와요. 한가롭고 느긋하니 절로 즐겁구나, 그런 의미거든요. 시에서 원래 의미는 술이 얼큰하니 기분이 좋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제 블로그 별명인 '주모'도 거기서 따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즐겁고 기분 좋게 지내다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이곳 이름을 '도연자락'으로 지은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살구 주모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있었군요. 막걸리도 빚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인숙 아직 그건 못 해봤는데, 차차 해야겠죠?(웃음)

살구 꿈꾸던 삶을 이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땅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도요. 순환하는 땅



양인숙씨가 손수 일군 '도연자락' 전경.

을 만들 때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양인숙 생활에서 나오는 부산물들로 퇴비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해요.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 쌀뜨물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요즘 버클리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 버클리에서 개발된 퇴비라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큰 통에 부엽토나 낙엽과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물을 뿌려요. 그리고 덮어두면 그 안에서 퇴비가 발효되고 부숙되는데 정말 최고의 퇴비예요. 이렇게 직접 퇴비를 만들어서 밭에 뿌리고, 다시 그 부산물로 퇴비를 만들면 버릴 게 없어요.

살구 어떤 작물을 재배하세요?

양인숙 한 100가지 정도 될 거예요. 처음 심은 건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생과로도 맛있고 얼려서 보관할 수도 있고 음료, 샐러드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관리도 쉽고요. 더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싶어서 베리류는 14종 정도, 허브도 바질·오레가노·보리

지 등등 17가지, 유실수는 감·배·사과·대추·호두 등 12종류, 그 외에도 약용수, 채소류, 곡류, 산채류, 표고버섯도 키워요. 다 외우질 못해서 적어두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보는 작물도 키워보려고 가드닝존을 만들어 추명국, 버들마편초, 램스이어도 심었어요. 계절마다 변해갈 모습이 너무 기대된답니다.

살구 주모님이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양인숙 이 공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삼돌이마을을 찾은 몇 팀이 다녀가셨는데, 이곳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도연자락을 통해 자연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퍼미컬처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살구가 만난 사람'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간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도 선뜻 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구는 지면 바깥에서도 반가운 만남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아다니는 비닐봉지가 되어

글/그림 김현진

그림책愛인. 그림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춘풍 삼사월을 훤히 지나갔다. 읍내 가로수의 봄 연둣가 어느새 뜨거운 여름 별을 견딜 준비로 초록 초록 바쁘다.

바람이 따뜻해지고 길 위의 흙들이 푹신거린다. 걷기의 날들이 시작됐다. 한 걸음씩 내 디딜 때마다 봄과 여름을 징검징검 건너는 기분이다. 영월 곳곳에 걸음 도장을 총총 찍는다. 사진찍기를 좋아하다 보니 걸음마다 멈춰 서서 네모반듯하게 풍경을 오려 내기 바쁘다. 아직은 아랫목이 필요한 어르신의 밤을 데웠을 누런 연탄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봉투가 아무지게 묶여 담벼락에 기대 있다. 꿀이 맺힌 목단꽃 봉우리 위에서 개미들이 만찬 중이다. 갓 피어난 바알간 작약이 길가에서 몸을 흔든다. 멀리 앞서가는 산책자의 뒷모습에 다정하게 시선을 보낸다. 부풀기 시작한 버들가지가 지나는 이들의 머리 위에서 간지럼을 태운다. 그 옆에서 나부끼는 검고 긴… 어라? 아, 비닐이구나. 바닥덮기용 농자재인 검고 긴 비닐이 바람에 날려 전깃줄에 내려앉은 것이다. 흡사 날개를 활짝 편 큰 새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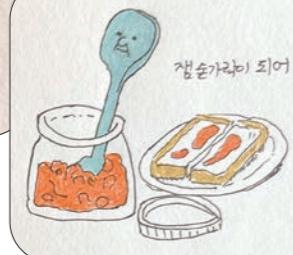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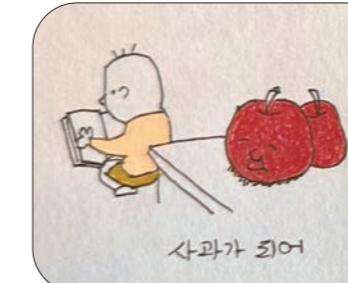
가끔 길 위에서 바람 따라 부양 중인 비닐봉지를 볼 때면 생각나는 그림책이 있다. 짧고 유쾌한 문장과 단순한 선 그림 때문에 딸과 내가 팬이 되어버린 작가 요시타케 신스케의 『이게 정말 천국일까?』다. 이 작가의 그림책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더우면 벗으면 되지』『오줌이 찔끔』『고무줄은 내 거야』『벗지 말걸 그랬어』『불만이 있어요』『이유가 있어요』『그것만 있을 리가 없잖아』『만약의 세계』『있으려나 서점』등 제목만 읽어도 즐거운 상상이 시작되는 그림책들이다. 그중에서 우리 모녀는 '이게 정말' 시리즈를 자주 꺼내 읽었다. 이게 정말 사과일까? 이게 정말 나일까? 이게 정말 마음일까? 나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림책 제목치고는 꽤 철학적인 이 책들 덕분에 아이와 함께 다양한 키워드로 수다를 나눌 수 있었다.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공책 한 권을 발견한다. '천국에서 뭐 할까?'라는 제목이 적힌 공책에는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가족에게 바라는 것, 천국에 갈 때 준비물,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 등등이 글과 그림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그중 내가 필사한 장면은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보는 방법에 관해 적어놓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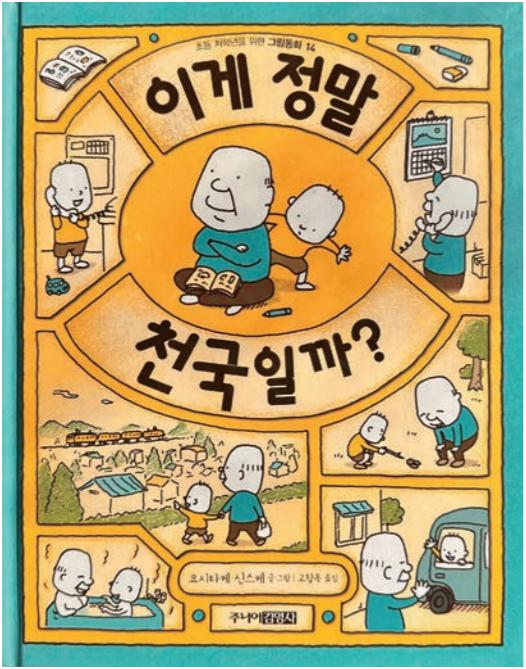


지나가는 아기가 되어

동전과 함께 있는
꾸깃꾸깃한
지폐가 되어

부분이다.

할아버지는 달이 되어, 지나가는 아기가 되어, 상처 딱지가 되어, 사과가 되어, 귀이개가 되어, 바람에 빙글빙글 날아다니는 비닐봉지가 되어, 잼숟가락이 되어, 동전과 함께 있는 꾸깃꾸깃한 지폐가 되어, 길에서 공짜로 주는 화장지가 되어, 목욕탕 의자가 되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싶다고 적었다. 필사를 하다 보니 보였다. 소년이 하루 종일



『이게 정말 천국일까?』, 저자: 신승기·그림: 주니어김영사펴냄, 2016.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과를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씻을 때도, 귀가 간지 러울 때도, 넘어졌을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바람이 불 때도 말이다. 나도 산책을 하다가 문득 5년 전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한다. 바람에 날리는 저 비닐이 혹시 아빠일지도 모르잖아. 조금 전 내 정수리를 간지럽히던 벌들까지가 나를 보러 온 아빠일지도 모르지, 하며 한 번 뒤를 돌아본다. 나는 죽음 이후 무엇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보려 이 세상에 들을까? 이번 5월 가족 모임에는 이 그림책을 챙겨 가야지. 그림책이 아빠가 보고 싶은 나를 이렇게 또 어루만진다.

공책을 사왔어요.

으음, 나는 천국에서 뭐 할까…

나는 죽은 뒤의 일을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살아 있는 지금 하고 싶은 일들만 자꾸자꾸 떠오르지 뭐예요.

『이게 정말 천국일까?』본문 중에서

그림책으로 나누는 죽음 이야기

『무릎딱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지음, 한울림어린이 펴냄, 2010.

『할머니의 팡도르』 안나 마리아 고치 지음, 오후의소묘 펴냄, 2019.

『여행 가는 날』 서영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2018.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올프 닐손 지음, 시공주니어 펴냄, 2008.



내가 살고 있는 무동마을

글 윤삼용(영월군 한반도면)

내가 쌍용 무동마을을 알게 된 건 정년을 앞두고 퇴직 후 정착할 시골 마을 알아보던 때였다. 마침 무동마을 이장님을 알게 됐고, 소개를 받아 폐가를 구입하면서 무동마을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큰길에서 5분쯤 걸어 올라가면 터널이 있다. 작은 어선 한 척이 지나갈 정도의 작은 터널이다. 터널 위로는 4차선 도로가 지나간다. 이 터널을 지나면 마을 전경이 꽉 펼쳐져 보인다. 왼쪽 산 밑으로 오래전 사용했던 상엿집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시 시선을 앞으로 향하면 작은 도량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멀리 보이는 마을 뒷산이 무동산이다. 어린아이가 춤을 추는 형상이라 무동(舞童)산이라고 부른다. 그 산자락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자연스레 무동마을이라 불리고 있다.

무동산 산줄기의 작은 산이 마을을 둥글게 감싸안은 가운데 농경지가 있고, 남향으로 지어진 집들이 자리 잡은 풍경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마을 위로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막다른 곳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 마을엔 예전부터 도둑이 없었다는 게 마을 어르신들의 설명이다. 도둑질하고 달아나 봐야 빠져나갈 길이 없어 마을로 다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평화롭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웃 사람들 마음도 넉넉해 인심이 넘쳐난다. 이 마을에 자리 잡고 살아온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됐다. 귀농한 가구도 몇 집 생겼다. 예전에는 삼척김씨 집성촌이었다는데 지금은 여러 성씨가 들어와 살고 있다. 마을 끝자락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다. 연못 속에서 커다란 잉어 떼가 노는 모습은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하다. 작은 사찰도 두 곳이나 있다. 아래동네 신월동에서 연못까지는 약 1km 거리다. 걷기 코스로 적당해 운동 삼아 걷는 주민들이 많다.

쌍용이라고 하면 공기 안 좋고 대형 차량이 많이 다녀서 살기 불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마을은 전혀 그렇지 않다. 큰길과는 거리가 멀고 공장은 산이 앞을 가려 생각처럼 나쁘지 않다. 영월읍과 제천시의 중간 지점이라 편리한 생활권이기도 하다. 이만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아닐까?

영월군민 여러분, 나무를 심어요

글 윤석천(영월군 영월읍)

4월의 대표적인 우리 고유 절기이자 세시풍속으로 '청명(清明)'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설,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에 속했다.

우리 조상들은 청명 15일 동안을 5일씩 구분해 첫 번째 5일은 오동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두 번째 5일은 들쥐 대신 종달새가 나타나며, 세 번째 5일은 무지개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청명 당일은 날이 풀리고 화창해 1년 중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시기며, 이날 서민들은 자녀가 시집, 장가갈 때 장롱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식목일에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의 100년 대계다. 유엔은 일찌감치 한국을 이스라엘과 함께 20세기의 대표적 녹화 사업 성공 국가로 꼽았으며, 2002년 '세계 산의 해'에는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 성공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이 '녹화의 기적'을 '유림의 기적'으로 탈바꿈해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즉 임업 강국의 꿈을 키워야 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조성된 인공림이 많고 이 숲을 제대로 가꾸면 지구온난화 물질인 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숲이 주는 혜택은 연간 50조원이 넘고, 국민 한 사람 당 1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니 육림에 더 투자하고 신경 써야 한다.

일전에 중국에 갔을 때 "만리장성을 쌓을 때 수많은 백성이 강제 노역으로 희생당했지만, 관광 산업으로 후손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줘 선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던 현지 안내인의 말이 떠오른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나무를 심고, 가꾸고, 지키는 것이 힘들고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 보람과 기쁨은 자손만대 수백, 수천 년간 지속된다는 걸 알려 준다.

우리 영월군을 병풍처럼 둘러싼 시루산, 음봉산, 계족산 등에도 소나무, 갈참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다. 이런 삼림과 조림이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하늘과 공기를 맑게 해준다. 훌륭하게 조성된 숲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후손에 대한 사랑이자 자산이다. 이 봄에 산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독자 여러분이 직접 쓴 에세이를 보내주세요. 영월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롯해 소소한 일상에서 느낀 감상, 사랑하고픈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 마주한 따뜻한 일화 등 어떤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글은 '영월愛세이' 코너에 싣고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5~10매 보내실 곳 neeliry@korea.kr

※ 글은 전문가의 윤문 및 교정·교열 과정을 거쳐 원문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분에게만 연락드리며, 심사 기준 및 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상국 무릉도원면 두산2리 이장

반딧불이 반기는 산골짜기 한마음으로 뜰뜰 뭉친 청정 마을

글 살구 / 사진 흥석진



『살기좋은 영월』이
우리 마을 이장님을
찾아갑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이장님들이
풀어놓는 동네 예찬에 귀
기울여 볼까요?
마을 주민들이 꿈꾸는
우리 동네 청사진도
이장님의 입을 빌어 살짝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손님맞이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 두산2리 부녀회원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5년째 두산2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상국(74)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더덕 농사를 오래 지었었는데, 지금은 집 주변에 6600m²(약 2000평) 정도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두산2리는 어떤 마을인가요? 예전에는 배양산마을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다 두산리로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 마을은 매우 아름답고 조용합니다.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고, 반딧불이가 나올 정도로 청정한 곳이죠. 그래서 인지 귀촌하는 분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7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마을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 정도니까요. 지금 짓고 있는 집들도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마을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마을이 제천시, 원주시와 가까운 접경지역이라 함께 힘을 보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황둔 생수 공장 반대 운동을 할 때도 함께 힘을 모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랑을 하신다면. 마을에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데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80세 어르신이 힘을 보태주셨을 정도로 모두가 함께 마을을 가꾸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마을이 정말 깨끗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만 해도 나무를 심으러 산림청에서 100명 넘는 분들이 오시는데,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부녀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려고 3일 전부터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마을

일이라면 모두가 내 일처럼 나서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명소가 있다면. 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에는 곳곳에 성황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한 개 남아 있는데요. 매년 9월 9일이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분이 어려울 때 성황당을 찾아가 기도를 드린 이후로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이 골짜기로 이뤄져 있다 보니 같은 마을이라도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10k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 곳곳에 정비가 필요한 곳이 생겨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니 조금 위험한 구간들이 있어서 그곳들을 잘 정비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마을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저 또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영월군에 바라는 점은. 우리 마을은 겨울이 되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눈이 많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외곽 지역이고 골짜기라 제설 작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군 제설 장비가 이곳까지는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살고 싶어 들어온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떠나가는 걸 지켜보자니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영월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방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의 수어 한마디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입니다.”

수어 최만영(영월군수어통역센터) / 사진 홍석진

여기



오른 주먹의 검지를 펴서 손가락 끝이 아래를 향하게 하고 약간 내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왼쪽 주먹의 엄지와 중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왼쪽 손목 밑에서
오른쪽 아래로 조금씩 흔들면서 내립니다.

영월군



오른 주먹의 등을 이마에 붙였다가 손가락을 전부 펴줍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작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월 한 문장씩, ‘보이는 언어’인 수어(手語)를
소개합니다. 틈틈이 익혀 청각장애인
이웃과의 소통에 활용해 보세요. 이 코너는
영월군수어통역센터의 지원으로 만듭니다.



성해나 지음, 창비펴냄, 2025년 3월.

진짜와 가짜

글 윤태원

“뭣이 중헌디? 뭣이 중하냐고 뭣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캐묻고 지랄이여.”

영화 ‘곡성’에서 딸 효진이가 아빠인 종구에게 소리치는 대사다. 영화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 않는다. 바로 ‘본질’을 묻는 대사라는 것. 본질을 보지 못하는 종구를 향한 일갈인 셈이다.

소설 ‘Honmono’에서도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대사가 짜릿하게 울려 퍼진다.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나만. 킥킥, 킥킥 킥킥.”

피 칠갑을 한 채로 작두 위에 남아 있던 ‘가짜 무당’ 문수가, 옆 작두에서 나가떨어진 ‘진짜 무당’ 신애기를 내려다보며 하는 독백이다. 분명, 신령의 보호를 받는 진짜 무당은 신애기다. 문수는 이제 신빨이다 떨어진 일반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삼십 년의 세월 동안 정성 들여 모시던 신령이 이제 갓 신내림을 받은 신애기에게로 말도 없이 옮겨간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당 바로 앞에 새 신당을 차리게 하고, 자신이 맡았던 굿판까지 빼앗아 가자 독기와 광기로 ‘진짜’를 이겨낸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가 되어 내뱉은 말이다.

‘Honmono(ほんもの)'는 ‘진짜’라는 의미의 일본어이며, 반의 어로는 ‘니세모노(にせもの)'가 있다. 소설 ‘Honmono’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며, ‘진짜’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독자에게 묻고 있다.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데 있어 ‘믿음’이란 게 필요한가 하는 질문 또한 함께 던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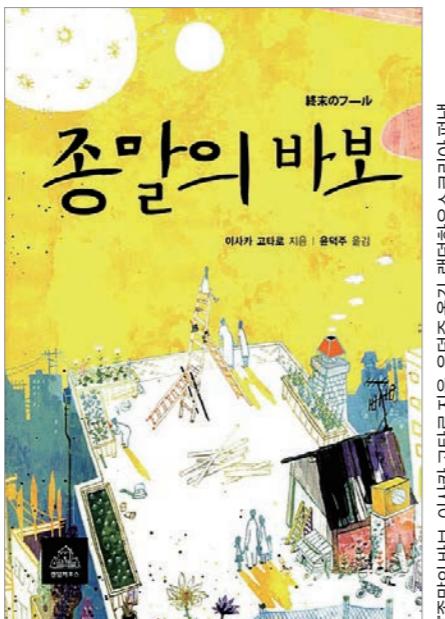
소설집 『빛을 걷으면 빛』 장편 소설 『두고 온 여름』 이후로 마침내, 성해나 작가의 새로운 작품집 『Honmono』가 출간됐다. 표제작인 『Honmono』는 이미 작년에 이 지면에서 몇 차례나 거론했었다. 2024년 2월호에서 『소설 보다: 겨울 2023』을 소개하며 수록작인 『Honmono』를 언급했고, 2024년 5월호에서 『2024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소개하며 또 수상작인 『Honmono』를 언급했었다. 이번까지 벌써 소식지에서만 세 번째 소개를 하는 셈이다.

이미 한번 소개했던 작품과 작가를 왜 또 소개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작가가 쌓아 올린 이력을 한번 훑어보라는 답을 하고 싶다. 2024년과 2025년 연이은 ‘젊은작가상’ 수상, 2024 ‘이효석 문학상’ 우수작품 수상, 2024 ‘김만중 문학상’ 신인상 수상, ‘이 계절의 소설’ 선정, ‘올해의 문제소설’ 선정 등등. 그야말로 돌풍처럼 문학판을 훑쓸고 다니는 작가인데, 어찌 예전에 한번 소개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Honmono』가 표제작인 작가의 신간 소설집이 나왔는데 말이다. 좋은 걸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책을 펼쳐 읽어볼 시간이다.

이사카 고타로 『종말의 바보』

당신의 멸망은 희망적입니다

글 이경석



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소행성이 날아든다. 직경 10킬로미터 크기에 초속 20 킬로미터의 속도다. 이미 5년째 궤도 변경 없이 잘 날아오고 있고 3년 뒤면 지구 와 충돌한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달랑 3년이라는 말이다. 아마도 공룡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이유로,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죽게 된다. 멸망이다.

당연히 세상은 엉망이 됐다.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 분노에 빠져들었고 그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타인의 목숨, 적어도 타인의 물건(주로 식량과 생필품)을 빼앗는 야탈자가 됐다. 식량을 찾아 혹은 좀 더 안전 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난 이들은 종종 되돌아오지 못했고 그렇게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흘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삶을 이어간다. 죽을 용기가 없었던 죽기 싫었던 아무튼 그렇게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자 혼란도 어느 정도 진정됐다.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며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크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

“모두가 지친 게 확실했다. 서로 빼앗고 제멋대로 행동한들 소행성의 충돌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 그렇다면 느긋하고 평화롭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틀림없다.” 143p

이사카 고타로의 소설 『종말의 바보』는 이런 상황, 3년 뒤면 종말을 맞게 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양한 등장인물의 면면은, 종말을 앞둔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흥미롭다. 3년 후면 지구가 결딴나는 판국에 누군가는 진득하니 격투기를 익히고, 누군가는 새 애인을 찾아 나서며, 또 다른 누군가는 최후의 날 홍수로 물에 잠긴 도시를 굽어보기 위한 망루를 세우는 일에 몰두한다.

가볍게 읽히고 일본 소설 특유의 발랄함이 곳곳에 묻어있지만 작가가 던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묵직한 화두는 『종말의 바보』를 그저 재미난 소설로만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를테면 이런 고민 앞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랜 세월 생기지 않아 포기했던 아기가 종말을 앞두고 덜컥 들어섰다면. 낳아봐야 3살이면 죽을 아이를 당신은 낳을까, 포기할까.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를 찾아낸 당신, 어차피 3년 후엔 죽을 원수이지만 그 전에 복수를 감행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소위 '정상적인' 세상의 원칙들, 이를테면 질서와 정의, 또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 따위가 무너져 내린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어쩌면 멸망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조차도 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린 모든 걸 포기한 채 암울한 나날을 보내야 할까. 작가는 소설을 통해, 어쩌면 희망이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을 건넨다.

“어떻게 되든 3년이라고요. 최대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세상의 종말이 평화로울 리 없잖아.”

“세상을 어쩌라는 게 아녜요. 이 집 말이에요. 세상은 무리라 해도 이 집 정도는, 우리 정도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 아녜요. 내 말이 틀려요?” 205p

세상은 멸망을 향해 있지만, 소설 속 이 사랑스러운 인물들은 절망하는 대신 각자 할 일을 찾고 지속한다. 동창을 찾아 축구 모임을 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손님을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하고, 어렵사리 식료품을 구해 가게를 운영한다.

그걸 '희망적'이라 부르기에는 어색한 감이 없진 않지만, 아무튼 소설 곳곳에선 '희망적인' 향기가 솔솔 풍긴다. 어쩌면 절망의 반대 지점엔 '무언가를 지속하는 삶'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실 달리 무슨 도리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묵묵히, 서툴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나에바 씨는 달리고 있다. 달리 어쩌라는 거냐, 라고 물으면서.” 211p

그렇게 삶을 이어갈 때, 삶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결국 '그래도 살아볼 만한' 삶에 가 닿는다. 슬픈 일이지만, 3년 뒤에 종말은 찾아올 것이며, 그러므로 아직 3년이, 어쩌면 3년이나 남았으므로 우리는 화해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사랑하는 이의 어깨를 감싸 끌어당길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 다가올 종말의 교훈이란 '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쯤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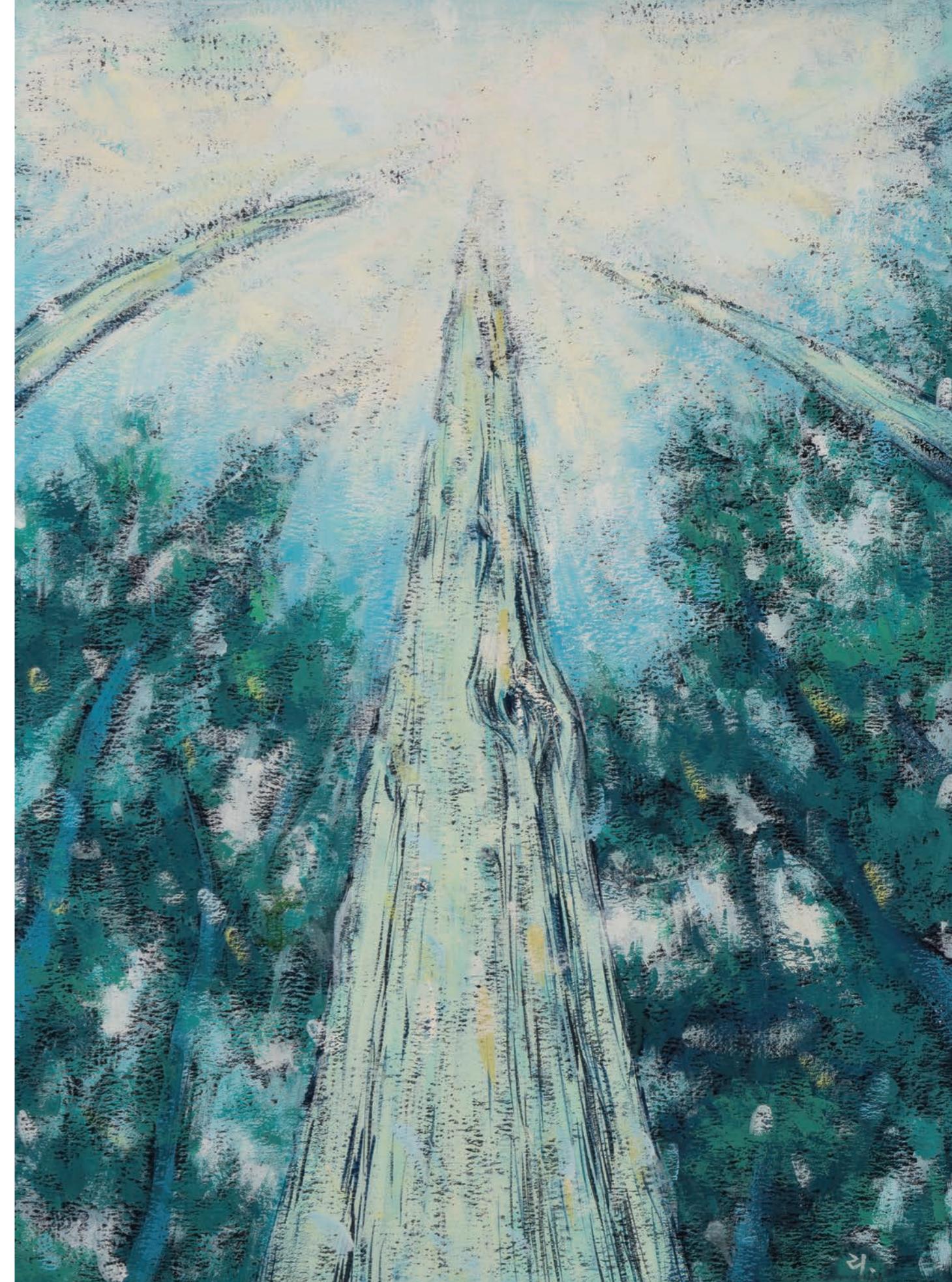
“힘내서, 어쨌거나, 살아라.” 335p

“죽어도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348p

이사카 고타로는 2000년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내 온갖 문학상을 휩쓸며 일본 문학의 차세대 주자로 불린 작가다. 현재 일본 내에서의 위상은 알 수 없지만 국내에도 꽤 많은 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에는 이사카 고타로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 영화 '골든 슬럼버(노동석 감독, 강동원 주연)'가 개봉돼 관객을 만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엔 『종말의 바보』가 원작인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보질 않아서 드라마에 대해선 따로 할 이야기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십수 년 전 그의 소설을 처음 접하고는 단박에 팬이 됐다. 국내에 꽤 많은 작품이 소개돼서, 집 책장의 한 칸은 전부 이사카 고타로의 소설로 채웠을 정도다. 혹여 그의 소설이 궁금한 독자가 있다면 『종말의 바보』와 함께 『사신 치바』, 『러시 라이프』를 적극 추천한다.

옴니버스식 구성(이전 이사카 고타로의 주특기라고 생각한다)의 8가지 이야기가 서로 얹히고 맞물리는 재미 또한 이 소설의 매력이다. 2006년 초판 발행된 랜덤하우스코리아의 책과 2015년 현대문학에서 펴낸 개정판은 모두 절판됐다. 지금은 지난해 소미미디어가 펴낸 새로운 표지의 『종말의 바보』를 만나볼 수 있다.





네팔 룸비니의 '붓다 자얀티' 축제에 참여한 불자들.

KOICA 월드프렌즈빌리지와 함께 떠나는 세계 일주 ⑫부처님의 고향, 룸비니

전 세계 불자 화합하는 평화의 축제

오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인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이다. 우리나라로 거리 곳곳에 연등을 밝히고
아기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이날을 조금 더 특별하게 기념하는 곳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탄생지, 네팔의 룸비니(Lumbini)다.

글/사진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 제공

룸비니는 네팔 남부 떠라이(Terai) 지역, 인도 국경과 가까운 평야에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한때 인도에서 룸비니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지만, 1997년 유네스코가 룸비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룸비니는 네팔에 있다'고 명시했고 그 이후로는 부처님의 탄생지가 네팔이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인됐다.

약 2600년 전 이곳에서 고타마 싯다르타, 훗날 '부처님'으로 불리게 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역사에 따르면 부처

님의 어머니인 마야(摩耶) 부인이 카필라국에서 친정으로 향하던 길에 룸비니 동산에 들렀고, 살라 나무 아래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전해진다. 이곳에는 룸비니의 핵심 유적인 마야데비 사원이 있으며 이 이야기는 불교 경전에 도 기록됐다.

마야데비 사원 주변에는 고대 인도의 황제 아소카왕이 불교로 귀의한 뒤 세운 석주(石柱)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운 다양한 불교 사원이 모여 있다. 태국식, 미

안마식, 티베트식, 일본식, 그리고 한국식 사원까지 마을 하나가 작은 지구촌처럼 다양한 불교 문화를 보여준다. 한국 불교의 건축물로는 법신스님이 세운 대성석가사가 자리 잡아 룸비니를 찾는 한국 불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붓다 자얀티(Buddha Jayanti)'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탄생뿐 아니라 깨달음과 열반까지 함께 기념하는 뜻을 담고 있어 더 깊고 넓은 의미의 축제로 여겨진다. 이 시기가 되면 전 세계의 불자들이 룸비니로 모여들어 꽃과 향, 촛불을 바치고 평화와 자비를 비는 기도를 드리며 행진을 벌인다. 거리는 연등과 기도 소리, 전통 복장을 갖춘 순례자들로 가득 차고 룸비니 전체가 하나의 큰 사원이 된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히말라야 아래 작은 마을 룸비니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룸비니에 세워진 대성석가사.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지구촌 친구들과 이어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에서는 네팔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 서남아시아관을 찾아 불교 경전이 담긴 마니차(摩尼車, 불교 경전이 새겨진 원통형 수행 도구)를 직접 돌리며 평화를 빌어보는 건 어떨까?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에서는 더 많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운영일: 월~금요일, 2~4주 토요일(1·3·5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운영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오후 4시 30분까지 입장 가능)

입장료: 무료(전시체험관 및 교육 프로그램 포함)

예약: 누리집, 네이버 예약, 전화 예약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3

누리집: wfv.koica.go.kr

문의: (033)834-5911

*전시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은 방문 3일 전까지 예약 필수

호미질로 지키는 손목·상체 건강

초급자

운동 효과 손목 관절 가동성 향상, 전완근 강화



호미를 가볍게 쥐고 손목을 좌우로 비틀어 움직입니다. 팔꿈치는 고정한 채 손목만 사용해 회전합니다. 손목과 전완근(前腕筋. 아래팔에 있는 근육)의 회전에 집중하며 10~12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반대 손으로 바꿔 똑같이 반복합니다. 작업 전 손목의 준비 운동에 좋고 어르신들의 손목 통증 예방에도 도움 됩니다.



농촌 생활에서 호미질은 떼놓을 수 없는 일상 중 하나입니다. 지루한 밭일이긴 하지만 잠깐 짬을 내 호미를 이용한 운동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놀랍게도 호미 하나로 손목과 전완근, 어깨, 코어 근육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답니다.

이해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수중 재활 지도. 프로 복서.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저서『알게 뭐야 내가 좋다는데』

상급자

운동 효과 손목 지구력 및 전완근 집중 발달, 상체 회전력과 복부 안정성 강화



양손으로 호미를 번갈아 바꿔 쥐며 허리를 비틀니다. 골반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허리와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비틀 때 숨을 내쉬고, 갑자기 확 비틀어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동작을 1분간 지속하고 30초 휴식하기를 3세트 반복합니다. 한 손에만 호미를 쥐고 좌우 방향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0초씩 3세트 진행하고 손을 바꿔 똑같이 반복합니다.



영월 시네마

5월 개봉 예정작



시크릿 쥬쥬 마법의 하모니

개봉 5월 1일 장르 애니메이션 국가 대한민국 감독 조경호
출연 박선영 등

ABOUT MOVIE

인간 세상의 선과 악의 균형을 지켜온 별의 보석 '쥬비쥬'.
사라진 별의 보석들이 흑화하면서 선샤인빌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별의 여신들과 쥬비쥬의 마음이 모여
완성되는 마법의 하모니로 선샤인빌을 구할 수 있을까?
새롭게 합류한 레드비쥬와 크림비쥬, 그리고 별의 여신
쥬쥬, 신디, 스텔라, 로사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



바이러스 Virus

개봉 5월 7일 장르 드라마 국가 대한민국 감독 강이관
출연 배두나, 김윤석, 장기하

ABOUT MOVIE

연애 세포 소멸 직전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기력도,
의욕도, 연애 세포도 바닥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번역가 택선.
첫 만남에 청혼까지 하는 모쏠 연구원 수필과의 엉망진창
소개팅 다음 날, 갑자기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기치 못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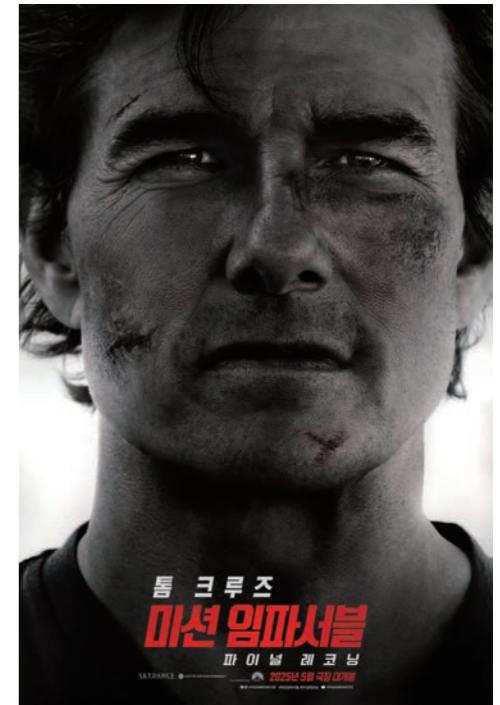


릴로 & 스티치 Lilo & Stitch

개봉 5월 21일 장르 애니메이션 국가 미국 감독 딘 플레이셔 캠프
출연 크리스 샌더스, 마이아 케알로하, 시드니 아구동

ABOUT MOVIE

외로운 소녀 릴로와 작고 귀여운 파란색 강아지(?) 스티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으로 거듭나면서 벌어지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모험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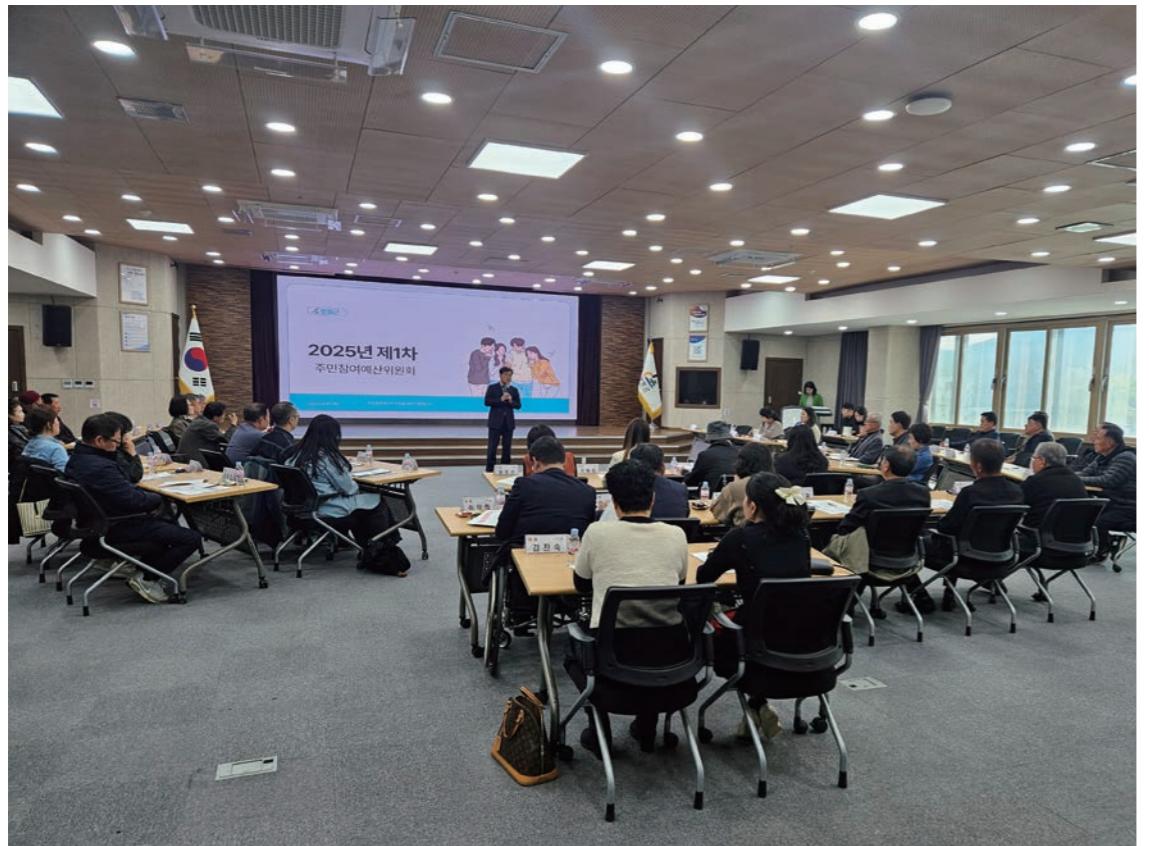
Mission: Impossible: The Final Reckoning

개봉 5월 중 장르 액션 국가 미국 감독 크리스토퍼 맥คว리
출연 톰 크루즈, 헤일리 앤웰, 빙 라메스

ABOUT MOVIE

첩보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8번째 작품.
인류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에단 헌트와
IMF 팀원들이 또 한번 목숨을 걸고 불가능한 임무에
나선다.

COUNTY NEWS



“우리지역 발전 주민 손으로!”

5월 말까지 주민 제안 사업 접수

2025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사진>가 지난 3월 31일 영월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군 관계자와 주민참여예산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올해 군 예산 현황과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 또는 예산 활용안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한편 군은 이달 말까지 주민 참여 제안 사업을 접수 중이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진 영월군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3-370-2064)로 문의하면 된다.

아트라운지 ‘열린 무대’로 탈바꿈

영월관광센터 아트라운지가 일반에 상시 개방된다. 영월관광센터 3층 아트라운지는 조명, 음향 등 전문 무대 설비와 89석 규모 객석을 갖춘 공연장. 지금까지는 주로 영월군이 주관하는 공연을 개최했지만 앞으로는 영월군민 누구나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열린 무대로 운영된다. 아트라운지는 예술 공연을 비롯해 학예회, 발표회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다양한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 대관은 무료며, 사전 신청 후 정기 공연이 없는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33)370-2880

“상담받고 전세 사기 예방하세요”

영월군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이들 또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월세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주거지 선정 지원 등이다. 부동산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 42팀 최종 선정

영월문화관광재단의 2025년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 공모에 총 42팀이 최종 선정됐다. 전문 예술인 및 단체 14팀, 지역 생활예술 단체 20팀, 찾아가는 문화 활동 단체 7팀, 장애 예술인 및 단체 1팀이다. 이번 사업은 영월 지역 예술 문화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팀에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지난 3월 18일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에서 각 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 설명회’<사진>를 열고 지원금 운용 지침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박상현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된 팀들은 지역 예술과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해 갈 것”이라고 했다.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영월군이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바우처 택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해 보호자 없이 이동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인 택시를 이용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10대의 장애인 콜택시에만 적용됐지만 4월부터는 일반 택시 98대를 포함해 총 108 대의 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 택시는 인당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새로 발행된 바우처 택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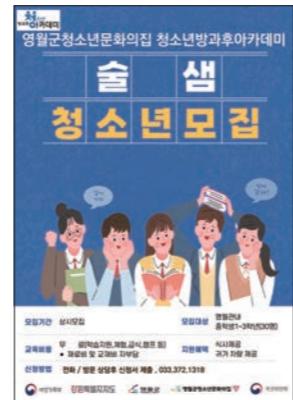
영월문화·예술시설 365일 개방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운영 중인 문화·예술 시설을 365일 전면 개방한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동아리의 창의적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다. 먼저 그간 화~토 운영해 온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을 일요일에도 개방한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은 대형 연습실 1개와 중·소형 연습실 5개를 갖춘 시설로 주말 연습 장소가 필요한 문화·예술 단체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월문화예술회관도 365일 개방한다. 394석 규모 공연장과 2개 전시실, 회의실을 1년 내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설 대관 신청 및 문의는 영월문화관광재단 누리집(www.ywcf.or.kr) 또는 전화(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 070-8894-9537~8, 영월문화예술회관 033-375-6377)로 하면 된다.

영월군-양주시 김삿갓 문화교류 맞손

문화 콘텐츠 연계 및 공동 행사 추진

영월군과 경기도 양주시가 방랑시인 김삿갓을 매개로 한 문화와 문학 콘텐츠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조선 후기 전국을 유랑하며 풍자와 해학이 담긴 시를 남긴 김삿갓은 양주에서 태어났고 방랑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로 영월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삿갓 생가터를 보유한 양주시는 매년 '양주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를, 김삿갓 유적지가 있는 영월군은 매년 '김삿갓문화제'를 개최하며 관련 문화유산을 계승해 왔다. 영월군과 양주시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을 기반으로 김삿갓 관련 문화와 문학 콘텐츠를 연계하고 공동 문화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문화적 교류를 넘어 경제와 관광 등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갈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도균)은 '술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참가자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 술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및 체험 활동, 급식 등을 제공해 자립 역량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수학, 영어, 미술, 음악 줄넘기 수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스트레스 해소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코딩, 금융, 스마트폰 활용 기법 등의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영월군 중학교 1~3학년 재학생이며 신청은 전화(033-372-1318)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재비와 재료비를 제외한 전체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돌봄 체계 강화... 사회적 고립 극복 총력

영월군이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 계층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에 팔을 걷어붙인다. 군은 이를 위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적 고립 자가 진단' 설문을 영월군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는 등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사진>를 촬영하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진단 결과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군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또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중장년 및 노년층 1인 가구 대상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벗과 함께(65세 이상 1인 가구) ▲신사의 품격(50~69세 1인 가구) ▲홀로지만(60세 이상 사별한 남성) 3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각 대상에 해당하는 영월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전화(033-375-4600)로 하면 된다.



자가진단 QR코드



영월군, 도민 생활체육대회 준비 만반

8300명 참가... 9월 26~28일 개최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9월 26일부터 사흘간 영월군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4년 제22회 대회 유치 후 11년 만의 재유치다. 도내 18개 시·군 약 8300명이 참가할 이번 대회에서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25개 정식 종목에 시범 종목인 드론, 유도, 합기도를 포함해 총 28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일찌감치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지난 2월 대회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3월 19일에는 제1차 추진위원회<사진>를 열고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군은 대회가 치러질 경기장과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숙박업소 환경 정비와 접객업소 종사자 대상 친절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린이영어뮤지컬 교육생 모집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어린이 영어 뮤지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노래와 연기, 춤을 결합한 이번 교육 과정은 영어 실력과 함께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영월군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총 25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5월 6일까지 영월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이메일(thdus00770@ywcf.or.kr) 또는 영월문화도시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5~11월 총 2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33)375-6368



Council News

농산물 명품화, 지역 균형 발전에 만전 제319회 임시회 3월 17~21일 개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7~21일 5일간 개최됐다. 회기 첫날인 17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18~20일에는 제2~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군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았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선주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통해 군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발전과 행정 개선을 위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김대경 의원은 세무회계과에 "행정 목적이 사라진 공유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홍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득지원과에는 "우리 군은 과거 사과와 포도 등을 농산물 품평회에 출품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다시 전국 단위 품평회에 도전해 영월군 농산물 명품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상태 의원은 "상동고 야구부의 활성화에 따라 높아진 지역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거주 여건 개선에 관련된 각종 공모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농업축산과에는 "다슬기 등 어족자원 고갈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채취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어족 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경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성과를 짚었다. 박 의원은 "제도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와 조사에 힘쓰는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 창구를 확장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증진과에는 "타시·군의 경우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투석 환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투석 후에는 자가운전이 어려운 만큼 교통비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심재섭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빙집 문제를 들었다. 심 의원은 "빙집 발생과 이에 대한 철거 사업 신청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빙집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축산과에는 "동물보호센터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과 재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용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각종 공모 사업 추진 시 대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읍·면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

했다. 산업경제과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지역화폐 카드 인센티브 선제급 정책 시행을 환영한다"며 "고령층 등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임영화 의원은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특히 인구 정책 관련 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증진과에는 "도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군도 관련 부서와 지원 대상 범위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으로 보는 영월군의회



3월 1일
3.1절 기념식



3월 4일
제4회 영월군 풍년기원제



3월 9일
2025년 영월향교 춘기석전대제



3월 17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3월 21일
제15회 동강할미꽃전시회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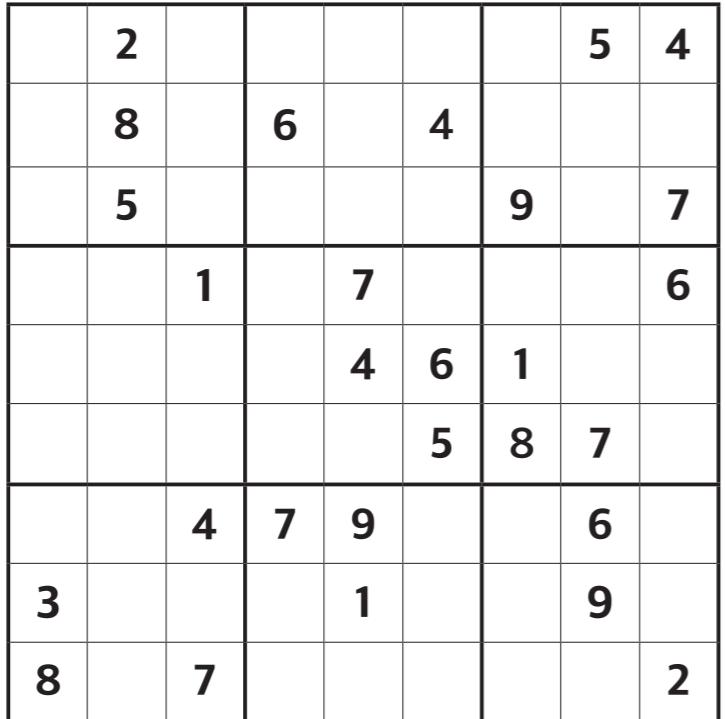


3월 24일
상동고등학교 기숙사 개관식

영월군의회는 '함께하는 의회, 행복한 군민, 발전하는 영월'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며, 견제와 협력의 균형 의회, 대화와 신뢰의 민주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도쿠

vol. 221



정답을 기재 후 촬영해 이메일(neelirya@korea.kr)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5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정답제출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에게만 연락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군정 소식지 퍼즐 당첨자 선물 지급

● 개인정보 수집 대상: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주체: 영월군(기획감사실 공보팀)

● 개인정보 보유 기간: 2025년 12월 31일

220호 정답자

ppyco*@naver.com
cobongn*@naver.com
kkm552*@naver.com
three314*@gmail.com
pink010*@naver.com





영월장학회 장학금 기탁자

- 한반도권역 협동조합(대표 이홍기) 100만원
- (주)케이로(대표 김수미) 200만원

도움의 손길

- (사)한국관광클럽(회장 김종민) 100만원
- 적십자영월봉사회(회장 정기자) 어려운 이웃 20가구에 반찬 봉사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낙찬)과 영월우체국 그린나래 어려운 아동·청소년 10가구에 운동화
- 북면 남녀의용소방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 봉사
- 영월읍 덕포4·5리 발전위원회(회장 신재현) 덕포 제방 일대 환경 정화 봉사
- 나눔애협동조합(대표 김현수) 어려운 이웃 위해 365만원
- 주천적십자봉사회(회장 정명숙) 주천면 시가지 환경 정화 봉사
- 상동읍생활개선회(회장 송태임)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 봉사
- 영월라이온스클럽(회장 신재광) 영월군보건소에 혈당 측정기 100세트
- 한반도면 사랑봉사회(회장 김정애) 한반도면 6개 경로당에 행복 도시락
-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15가구에 생필품 꾸러미
- 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상현)과 영월은하수로타리클럽(회장 박금순) 어려운 이웃에 도시락 120개
- 주천면 주천약국(약사 손락서) 독거노인에 130만원 상당 구충제 1300정
- 북면생활개선회(회장 김정희) 마차중·고등학교 학생 간식 나눔
- 김삿갓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순자) 어려운 이웃 위해 반찬 봉사
- 주천면노인회(회장 김종빈) 회원 20여 명 환경 정화 봉사
- 영월읍 삼목2리 주민 50여 명 환경 정화 봉사
- 주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명화) 환경 정화 봉사
- 북면 문곡4리 김신자·김정례·민금례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100만원
- 산술면 녹진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22명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51만원
- 무릉도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동준) 위원 16명 어려운 이웃 31가구에 반찬 봉사



여원그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3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강보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부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순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강신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창수	경기도 남양주시
강현석	경상북도 예천군
강희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기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기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덕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동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고유림	경기도 시흥시
고형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곽수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국현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권대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권세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연식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권인호	경상북도 예천군
권중皓	경기도 고양시
권예민	대구광역시 북구
금치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김경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경범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경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김경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광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구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김근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남성	경기도 부천시
김남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동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김미경	경기도 안양시
김미경	경기도 안양시
김민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민정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민지	경상남도 거제시
김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보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복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선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선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선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설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성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영복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김영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영진	전라남도 해남군
김용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윤수	대구광역시 북구
김용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워규	경기도 고양시
김유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유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윤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은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은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은진	경기도 성남시
김은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재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재희	경기도 안산시
김정미	경기도 안산시
김정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김정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종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김종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종영	인천광역시 서구
김종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종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주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주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준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김지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지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진수	광주광역시 서구
김진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창석	울산광역시 중구
김창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태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태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현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현주	충청북도 청주시
김현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현월	인천광역시 운정군
김현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김혜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혜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홍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김휘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김홍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희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지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가경	충청남도 천안시
남상윤	경기도 화성시
노경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라영민	경기도 성남시
문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옥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이화	경기도 성남시
문이화	경기도 성남시
문이화	경기도 성남시
박가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박경만	경기도 고양시
박기령	경기도 광주시
박민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박범수	인천광역시 서구
박선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박성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성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박수균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박순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박영준	경상북도 안동시
박용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원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박원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박윤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박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일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정래	경기도 양주시

박준성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유운상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상민
박진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유인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영규
박찬수	경상북도 예천군	유재석	전라남도 영암군	전영일
박홍순	경상북도 구미시	유재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윤우
배다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유정환	부산광역시 남구	전자욱
배선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유정환	부산광역시 남구	전총제
백갑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유주한	경기도 김포시	전태기
백나눔	경기도 이정부시	유진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미영
백남희	경기도 안산시	윤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민철
백지훈	인천광역시 강화군	윤현화	경기도 수원시	정승재
백해숙	경기도 안산시	윤혜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유진
변혜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윤혜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하식
서동우	충청남도 아산시	윤혜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정향연
서승일	충청북도 청주시	이경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화경
서인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광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조가영
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조광희
서진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나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남섭
선주복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동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영남
성경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동혁	경기도 성남시	조영민
성나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상훈	경기도 용인시	조영희
손민경	경기도 안산시	이상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조인형
손예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성재	경기도 김포시	조자은
손은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이술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준현
손주희	경상북도 경산시	이수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영아
송금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승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창수
송선익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이승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무근
송수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영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인숙
송은미	경기도 수원시	이예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진원균
송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이예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상은
송지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윤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나영
신교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윤미	강원특별자치도 대백시	최보경
신민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윤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보령
신석신	경기도 고양시	이일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상미
신성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이재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영섭
신원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이정화	경기도 성남시	최영아
신지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정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용규
신창근	경상북도 포항시	이종운	경기도 수원시	최원석
신춘섭	충청남도 천안시	이주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유주
신현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이지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윤자
신호식	경상북도 예천군	이지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은주
신재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이지혜	서울특별시 은평구	최종민
신종택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이진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종석
신효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이찬성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종희
안계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철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지은
안기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춘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지혜
안상훈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이태일	충청북도 청주시	최현기
안주승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혁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현순
안준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현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혜민
양승재	경기도 하남시	이현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호근
양지웅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수빈
양호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재윤	경기도 김포시	합원식
양희	경기도 화성시	임재호	경기도 광명시	허진범
임봉석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창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홍경호
임석팔	경상북도 포항시	임태진	전라남도 완도군	홍동원
임정아	경기도 광명시	임현주	경기도 성남시	홍성민
옹내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장수범	경상북도 예천군	홍영훈
옹택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신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홍운정
옹정하	경기도 수원시	장안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황승훈
우경호	경기도 과천시	전난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신숙
우종원	울산광역시 동구	전미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황영호
유선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전미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황재득
유수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보람	서울특별시 강남구	황지아

상상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영규	경기도 성남시
전영일	강원특별자치도 청선군
전윤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자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전총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대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정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민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정승재	경기도 남양주시
정유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하식	충청남도 부여군
정향연	강원특별자치도 청선군
정화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가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광희	강원특별자치도 청선군
조남섭	경기도 구리시
조영남	대구광역시 북구
조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영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조인형	강원특별자치도 청선군
조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준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영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창수	강원특별자치도 청선군
지무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인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진원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천상은	충청남도 당진시
최나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보경	경기도 화성시
최보강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상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최영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최영아	경기도 성남시
최용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최원석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유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운자	강원특별자치도 청선군
최은주	경상북도 예천군
최종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종석	경기도 화성시
최종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지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최지혜	경기도 성남시
최현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현순	강원특별자치도 청선군
최혜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호근	강원특별자치도 청선군
한수빈	경기도 안양시
함원식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허진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홍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동홍	경기도 수원시
홍성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홍영훈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홍운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승호	강원특별자치도 청선군
황신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황영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황재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황지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민국 최초 공립 사진전문박물관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

동강사진박물관
Dong Gang Museum of Photography



영월읍 동강대교의 봄밤.